

// 가계 신용대출 늘어나는데...

#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어 신용대출금리도 들쭉이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신용대출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이들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전월 대비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월 카카오뱅크의 일반신용대출(미이너스통장 제외) 등급별 평균금리는 3.97%로 전월 3.88%에 비해 0.09%p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전월 4.89%에서 5.63%로 0.74%p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신용대출

## 통상 1월 상여금 등 영향 신용대출 감소 불구 편한 접근성에 증가폭 확대...가계 이자 부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1조3000억원)보다 확대된 증가폭이다. 이같은 기타대출 규모는 1월 기준,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액 1조4000

억원 중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60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통상 1월에는 연말 상여금 등이 나와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 신용대출 증가폭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신

용대출 증가액 1조1000억원 중 7000억원 가량이 인터넷전문은행 몫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아무래도 대출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같은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직장인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이 중단됐다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저금리 상품 비중이 여전히 높은 탓"이라며 "여전히 일반 은행에 비교해선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현대차, 6년만에 신형 싼타페 출시

개발부터 완성까지 고객 편의 최우선...2895만원부터

현대자동차는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신형 싼타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12년 출시된 3세대 싼타페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4세대 신형 싼타페는 제품개발 초기부터 완성까지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완성됐다.

특히 사용자를 세심히 배려하는 최근의 캠퍼스(Calm Tech·편안한 기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철저한 사용자 경험(UX) 관점에서 개발된 신형 싼타페는 디자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주행성능, 안전·편의사양에 이르기까지 차량 전반에 걸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신형 싼타페는 전장 증대와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와이드 캐스캐이딩 그릴, 분리형 컴포지트 라이트 등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웅장한 외관을 연출하는 한편, 인간공학적 설계와 고급 소재로 실내 감성품을 극대화하며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최적의 패키지 설계로 동급 최고 수준의 거주공간과 적재공간을 제공한다. 또 8단 자동변속기와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R-MDPS)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전자식 상시 4륜구동 시스템(AWD) HTRAC을 현대차 최초로 탑재해 주행성능도 제고했다.

안전 사양을 높이고 스마트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최적의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동급 최고 수준의 고성능 차체 구조를 구현하는 동시에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해주는 다양한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기본 적용했다.

이외에도 ▲사운드하운드 ▲서버형 음성인식 ▲음성 메모 ▲SMS 읽어주기 ▲애플 카플레이 및 미러링크 등 차량 커넥티비티 기술이 반

영원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했다.

신형 싼타페는 출시 전부터 올해 최고의 볼륨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사전계약을 실시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영업일 기준 8일) 1만 4243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사전계약 개시 첫날에만 8192대가 계약돼 국내에서 사전계약을 실시한 SUV 차종 중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신형 싼타페는 디젤 2.0, 디젤 2.2, 가솔린 2.0 터보 등 세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디젤 2.0 모델은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프레스티지, 디젤 2.2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립으로 각각 운영된다.

현대차는 시장의 경쟁 상황과 고객들의 기대를 반영해 신형 싼타페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

판매가격은 디젤 2.0 모델이 ▲모던 2895만원 ▲프리미엄 3095만원 ▲익스클루시브 326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395만원 ▲프레스티지 3635만원, 디젤 2.2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3410만원 ▲프레스티지 3680만원,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281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115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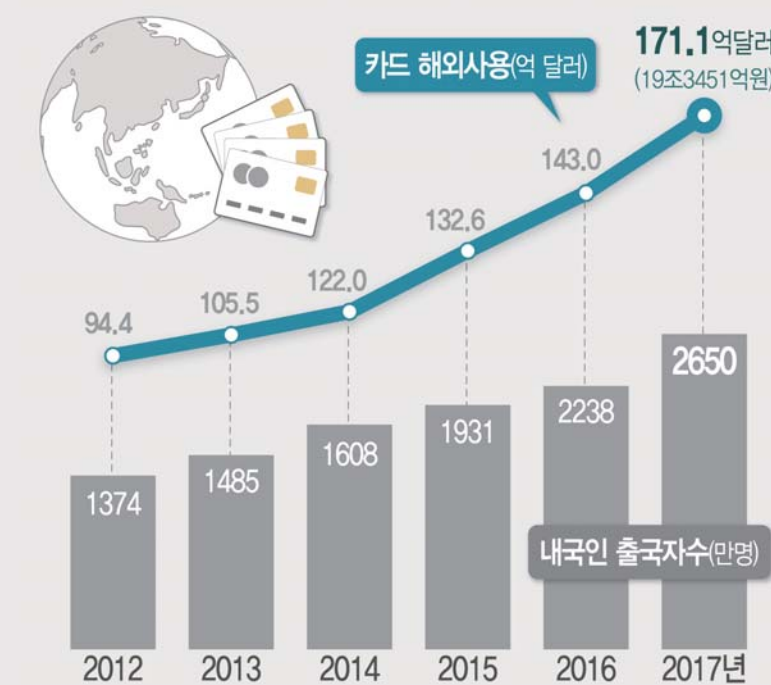
현대차는 신형 싼타페의 3대 특장점인 디자인, 공간성, 안전성과 새롭게 적용된 캠퍼스를 보다 많은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광고 및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는 고객이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순간에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며 국내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며, "동급 최고로 올곧게 국내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해외서 쓴 카드값 19조3500억...사상 최대

국내 거주자, 해외 카드사용액 171억1200만달러  
5년새 81.3% 급증...해외나가는 관광객 증가 영향  
중국인 관광객 끊겨 외국인 국내 카드사용액은 급감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추이 (단위: 억달러, 만명)



지난해 평균 환율 1130.5원 기준 해외 카드=신용·체크·직불 포함, 여행카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쓴 카드값이 19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금액은 171억1200만달러로 전년(143억달러)보다 28%

뉴스스



## 남도 대표 명물 '꼬막' 편의점 도시락 안으로 CU, 남도꼬막정식 도시락 출시

남도 대표 명물인 '꼬막'이 편의점 도시락 안으로 들어왔다. CU(씨유)는 꼬막을 메인 반찬으로 구성한 '남도꼬막정식 도시락(4900원)'을 21일 출시했다.

남도꼬막정식 도시락은 매콤한 소스에 무친 꼬막무침을 메인 메뉴로 담았다. 꼬막무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콤한 소스에 무쳐진 비빔면 & 비빔밥과 매콤함을 중화시킬 수 있는 호박전, 명엽채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등 6가지 반찬을 푸짐하게 구성했다.

남도꼬막정식 도시락은 꼬막의 맛이 가장 뛰어난 시기인 3월까지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황지선MD는 "제철을 맞은 지역 프리미엄 원재료를 활용해 전문점 수준의 건강한 한끼를 가까운 CU(씨유) 매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연계 상품의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